

순천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순천시는 지난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상식 모습이다.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호응 얻어 '사람도 새도 살기 좋은 미래도시 모델 만들 것'

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0일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개 결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12월 11일 2차 결선 PT 심사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교류성과, 참신성 등을 평가했다. 시는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중일러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간 협력 강화 ▲ 국내 흑두루미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간 협력 강화 ▲ 제11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로 탐조문화 확산 ▲ 전

세계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습지도시 간 정보 공유 약속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발표해 평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본 NHK 방송국과 한국 주재 외신 기자클럽에서 순천만의 보전과 흑두루미 보호 사례를 전 세계 160개국에 방송해 순천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관규 시장은 "국가 간,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와 종소멸에 대응하고 사람도 새도 살기 좋은 미래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공정 담배 판매 질서 확립 '담배소매인' 일제 정비 위반 업소, 지정 취소 행정처분 조치

여수시는 공정한 담배 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관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1,180여 개소로 사업장 휴·폐업 시 국제정 사업장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시정에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 충족 사업장은 200여개소로 앞서 여수시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폐업 신고의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 ▲비영업 중임에도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이다. 여수시는 담배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폐업 미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복지부 보육정책 평가 전남 유일 우수기관

보성군은 2023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보육정책분야 우수지자체단체 평가에서 전남 유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보성군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 취약보육 실시 노력 등 안정적인 공보육 확충, 통학차량 지원, 급식·위생 점검, 친환경 식재료 구매 지원,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등 어린이집 안전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 평가인증 및 A·B등급 어린이집 비율 100%, 부모 모니터링 참여율 100%, 열린 어린이집 선정 비율 91%로 어린이집 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김철우 군수는 "보육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성을 만들어 나갔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시행 한 달...탑승률 2.7배 ↑

대중교통 활성화로 탄소 저감 효과·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 긍정적 효과

광양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 일환으로 단행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 시행 첫 한 달 새 15,000여 명이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률이 무려 2.7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관련 데이터

를 수집·분석한 결과로 대상 연령을 65세로 완화하고 횡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이용도를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 광양시가 지난달 1일부터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탑승제'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를 이용해 (취광역교통 시내버스를 횡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제도다. '어르신 복지교통카드'는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순천교통(77번, 777번), 여수여객(610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은 전철, 도시철도 등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은 서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교통체증 감소, 탄소저감 기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탑승률이 2.7배로 급증하는 등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여 사업 목적과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주간 운영 성료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환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이후 감염에 취약해진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순천시사회·요양병원·순천성가톨릭병원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요양병원 2개소(순천만요양병원, 메디팍요양병원)를 시작으로, 순천생협요양병원·순천성가톨릭병원 등을 방문하여 전라남도·순천시·사회·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등과 병문안 개선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 추진

산림부산물 활용 난방용 땀감 지원으로 이웃사랑 실천



고흥군은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난방용 땀감으로 지원하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이 매년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임산물 중 땀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을 수집해 난방용 땀감으로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나눔 행사다. 지원 대상자는 아궁이나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90가구를 읍·면에서 추천받아 선정했으며, 가구당 1톤씩 각 가정까지 직접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고부가가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절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